

본문: 요한복음 3 장 1-12

제목: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1. 예수를 찾아온 니고데모

여러분이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추수가 다 끝나고 저희 집의 안방에서 태어났다는데 그날을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자신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태어난 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다면 살아있지도 않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는지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이는 뜨겁게 임했던 중생(거듭남)의 기억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잔잔하게 임했기에 별다른 기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거듭남이 뭐가 뭔지 감이 오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날이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매년 태어난 날을 기념합니다. 영적인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 본 사람만이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분과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체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거듭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면 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알아보시다.

니고데모가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우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 이외에도 그들만의 규범과 전통을 만들어 그것을 강박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강박적인 거룩과 경건을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메시야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갇힌 체계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범을 지킬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의 갇힌 시스템이 바로 성전 시스템과 정결예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구별된 제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71 인의 대표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입법 사법 행정을 주관하는 기관이지요. 니고데모가 유대사람들의 지도자였다고 소개되는데, 여기에 쓰인 지도자란

말은 아르콘(arkon)입니다. 아르콘은 바로 산헤드린의 멤버로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의 이름 니코데모는 승리라는 뜻의 니코와 백성이라는 뜻의 데모스가 합쳐진 것을 보면 헬라식 교육과 교양을 겸비한 사람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봉에 오른 지도자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2.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 온 이유

그의 방문의 이유가 의구심과 의아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2 절 말씀의 뉘앙스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헛갈렸던 듯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의 명성을 잘 알고 있었던 듯 합니다. 예수가 어떤 이적들을 행해 왔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했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38 년동안 앓은뱅이로 살아온 사람을 걷게 하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한 사람이란 것을 이미 알고 왔습니다. 이런 표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수 없이 나타낸 사람들이었죠. 예수는 적어도 모세와 엘리야급의 선지자임에 분명해 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되는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신성모독을 행하는 예수가 진짜로 죽어 마땅한 사람인지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급의 예언자인지 니고데모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 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상징을 자주 사용합니다. 밤도 여기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봉인 니고데모 조차 밤의 사람, 즉 암흑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밤의 암흑 가운데 참 빛이라고 소개되는 (요 8 장) 예수에게 찾아 온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3 장 30 절에서는 유다가 예수를 팔고 나가니 밤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유다가 어둠의 세력과 손잡고 암흑으로 들어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뭔가 명확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3 절로 답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정으로 라는 뜻의 Amen 이란 말이 두 번 연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이 없는 독특한

화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한 말의 진정성을 표현하기 위해 마지막에 아멘이란 말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맛있는 점심을 사줄게 아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에다 아멘을 두번 붙임으로 그의 말의 진정성의 무게를 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점심 사줄게.” 예수님은 다시 난다는 주제를 니고데모에게 던지십니다. 그런데 다시 라는 뜻의 부사 “아노텐(Anothen)”의 기본적인 뜻은 “위로부터(from above)”라는 뜻입니다. ‘다시 난다’는 뜻은 많이 의역한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이니 다시 나는 것이겠구나 하고 ‘다시 난다’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의 주제는 다시 태어남, 아니 위로부터 태어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3. 예수의 표적과 성전 훼방은 모두 하나님의 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방하니까 이해가 안된 것이고 그 모순 상황을 조화시켜 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뜬금없는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과 성전을 훼방하신 일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이것이 이해가 될 수 없으니 먼저 위로부터 나와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유대인의 시스템의 최정점에 오른 사람이라도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구요. 요한복음 1장 12-13 절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를 영접함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가문이나 학문이나 인간적인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예시가 3장과 4장에서 서로 극명하게 다른 두 인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시스템의 최고봉에 오른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종교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두 예시를 통해 앞의 논지를 그대로 받아, 어떤 인간적인 조건과 상관 없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가 행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훼방하여 고치시려고 한 것과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케 하시는 일이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고치는 것과 앓은뱅이를

건게 하시는 사건이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의 행각에 누워 있었던 38 년된 앓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건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앓은뱅이처럼 주저 앉아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입니다. 히브리 동사에서 '걷다(walk)'는 뜻을 가진 '할라크(Halakh)'는 순종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할 때 할라크 동사가 쓰입니다. 에녹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38 년된 앓은뱅이는 광야에서 38 년 동안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상기시킵니다. 불순종을 상징하는 38 년된 병자가 일어나고 걸으며 뛰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를 회복하셔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관계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전 훼방도 마찬가지였구요. 기능을 상실한 성전 기능을 이제 자신이 회복시켜 하나님의 언약백성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성전훼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일로 모두 같다는 겁니다.

앓은뱅이를 일으킨 것 말고도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치기도하고,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고쳐져 버립니다. 정결에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정결예법에서는 문둥병자같이 오염된 자들을 만지는 행위 자체가 불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시스템을 다 훼방 놓고 계십니다.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치고 혈루증 환자가 예수의 옷을 만져 오염시키지만 그녀를 치유해 버리시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런 표적들을 안식일에 막 행해 버리십니다. 안식일에 마땅히 행해져야 할 자비가 아닌 거짓 위선에 갇혀 있는 유대종교를 고발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종교위선을 폭로하기 위해 불결한 것을 자신의 거룩한 것으로 삼켜 버리는 생명력을 과시합니다. 율법을 여기는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명력이 예수를 통해 드러나고 이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현상인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서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 진단하시면서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않아서 이런 놀라운 일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의 의미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물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8 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을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부튼 것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말 루아흐(ruakh)와 헬라말 프뉴마(Pneuma)는 모두 영을 뜻하면서 바람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로 태어나고 바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물과 성령은 같은 말입니다.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과'라는 말은 conjunctive(등위접속사)가 아닙니다. 헬라말 '카이(kai)'라는 말인데 여기서 'that is to say'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 즉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을 같은 것으로 보는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에스겔서 36 장 25-26 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갓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 말씀은 물과 영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은 세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례 때 부어지는 물과 함께 성령께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로 씻는다는 의미이면서 물에 잠긴다는 뜻을 갖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물 속에 잠김으로 완전히 죽게 되며,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예식입니다.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는 내 삶이 현재 이곳에 발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되기를 원하는 결단인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감격적으로 지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성경의 논리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에스겔 36 장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고깃덩어리같이 말랑말랑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는 닫힌 종교이자 굳어진 딱딱한 시스템입니다. 닫힌 종교체계 속에 사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과 병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십일조를 드리고, 일 주일에 두 번씩 금식해야 하나님이 빨리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닫힌 종교의 틀 안에

있는 유대지도자에게는 성령이 임의적으로 불어 닦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가문도 무시하고, 학력도 무시하고, 어떤 조건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임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임의적으로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불어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의로 불기에 인간의 구원은 성직자가 담보하지 못하고 목사인 저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 위로 불어닥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공로나 조건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의 세계 저편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바람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누구에게 불어닥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됩니다. 닫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 바람이 부는 데도 닫힌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었습니다.

5.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

이렇게 성령님은 임의성을 띄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불어 닦칠지 모른다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물과 바람에 비유합니다. 사도행전 2 장에서는 성령을 불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성령은 물, 바람, 불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과 바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을 보십시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은 엄청난 위치에너지를 만들어 냅니다. 물은 빈 곳을 채우며 구멍난 곳을 매꾸며 흐릅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물건이 있더라도 물은 돌아서 유유히 흐릅니다. 물은 메마른 곳을 적시고 빈 곳을 채우면서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바람 또한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마음 비운 마음에 성령이 불어 닦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자신을 한 없이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에 성령이 불어 닦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임의로 불어 온다해도 성령은 자신을 겸허히 비우고 낮추어 하나님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불어 닦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자신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갈망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은 또한 불과 같습니다. 불은 저 위를 향합니다. 불은 아래로 타오르지 않습니다. 항상 위로 타오르는 성질을 갖습니다. 성령이 불로 비유되는 것은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 나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때문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온 헛된 욕망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위해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삶으로 열린 삶의 태도를 갖기 시작합니다. 욕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욕망이 하나님의 욕망으로 대체됩니다.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 욕망을 재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누리는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욕망으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욕망의 재조정은 성령님이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일상이 아무런 의미 없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일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일터에 와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네에도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어느 누구에겐가 임의로 불어닥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위로부터 온 것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우리를 위로 향하는 삶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바람은 위로부터 내려지고, 불은 우리의 삶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이 땅의 헛된 욕망을 채우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며 욕망을 재 조정하게 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가 위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나를 부리고 나를 이끄시는대로 따르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유대인의 최고 지도자이자 최고 석학이었으며 최고봉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가 만들어 오신 하나님 나라를 볼 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며 느끼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나눠봅시다.